

# 박지원 “투기 아이콘” vs 손혜원 “배신의 신공”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과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간 공방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김효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손혜원 의원께서 저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손 의원이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언론에 의거해서 (부동산 매입이) 20여 곳, 30여 곳에 가까운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본인이 부인하지 못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투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 건너에 아파트 하나 소지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어딜 감히 다신 의원이시며 대통령 비서실장에 장관까지 역임, 일생을 통해 불세출 배신의 신공을 보여준 진정한 배신의 아이콘과 견주겠느냐”고 비아냥댔다.

그는 “문재인 당 대표 배신하고 나가서 당 만들고 안철수 후보 대선이 끝나자 바로 배신·총 겨누고 목포 박홍을 시장을 지지한 지

박지원 “부인하지 못하면 누가 보더라도 투기”

손혜원 “박지원, ‘아이콘’급 배신 경력 쌓아와”

평화당 “당에 대한 도전...손혜원 국정조사해야”

방신거에서 후보 공천 직전 배신, 다른 후보 공천했다 어디 이것뿐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아이콘’급 배신 경력 정도는 경력을 쌓아야 어느 분야든 ‘아이콘’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손 의원은 전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에서도 “배신의 아이콘이자 노회찬 정치인을 물리칠 방법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도시 재생의 뜻이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 유세차를 함께 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개적으로 나선 운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목포 투기 의혹이 처

음 제기되자 “손 의원이 목포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 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 의원과 관련된 부동산 매입이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에 본인 스스로 수사 의뢰해서 의혹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박 의원은 또 19일 페이스북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저수지 물을 다 흐린다”며 “300여 명에게 부동산 구입을 권했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복병방을 개입해야 옳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저도 속고 모두가 속았다. 손 의원은 이 실직고하고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아 사실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손혜원

손 의원은 박 의원이 태도를 바꾸자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 조사 기는데 박지원 의원을 빼뜨렸다. 목포 시장이 세 번 바뀔 동안 계속 목포지역 국회의원을 하겠다”며 “그 기간에 서산·온금지구 고도제한이 풀렸다. 서산·온금지구 고층아파트는 계속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지역 재개발 과정에 박 의원이 개입한 것처럼 의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손 의원이 목포 서산온금지역 재개발

사업과 조선내화 굴뚝 고로 등의 근대산업 문화재 지정에 대해 박 지원이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이미 2017년도부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재반박했다.

손 의원이 박 의원을 ‘노회한’ ‘배신의 아이콘’ 등으로 깎아내리면서 검찰 수사를 언급하자 평화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손 의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같은 당 서진희 최고위원은 “조속한 시일 내 공개적인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사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손 의원도 당당히 국정조사를 열어서 진실을 밝히고 민주당에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진희 최고위원도 “박 지원 의원을 겨냥한 몰상식한 발언을 한 손 의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박 의원을 걸고넘어진 행태는 박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9.1%

‘손혜원 논란’에 상승세 꺾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0.5%p 내린 49.1%를 기록했다. 새해 연이어진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2주 연속 지지율이 올랐지만, 최근 불거진 손혜원 민주당 의원 ‘목포 투기 의혹’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4~1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공개한 1월3주차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8%)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1%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8%p 오른 45.8%(매우 잘못함 29.2%, 잘못함 1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지난주 대비 0.3%p 감소한 5.3%를 기록했다. 금·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내인 3.8%p로 조사됐다.

새해 경제행보로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논란이 확산되면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이 울산 수조제조공장 현장 방문으로 올 첫 지역 경제현장 행보를 내세운 17일(목)에는 51.7%(부정평가 43.0%)로 상승했으나, 손 의원의 목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논란 보도가 확산된 18일(금)에는 48.8%(부정평가 45.8%)로 다시 내렸다”고 밝혔다.

세부 계층별로는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30대, 자영업과 가정주부,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0.3%p 내린 39.8%를 기록했다. 뒤이어 자유한국당(24.3%), 정의당(7.5%), 바른미래당(6.3%), 민주평화당(2.7%) 순이었다. 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0.4%p, 0.5%p 각각 올랐다. 반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1.6%p, 0.1%p 각각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오세훈 “각종 검증 거치면서 황교안과 우열 가려질 것”



“황교안 비박계 보좌진 비법칙해”

홍준표·김병준 출마 부정적 입장

오 전 시장은 황 전 총리가 최근 비박계 인사들로 보좌진을 꾸린 것에 대해서는 “비법칙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이른바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도와주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며 “당이 자연스럽게 초계파, 탈계파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비법칙한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유보했다. 오 전 시장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2의 반기문 사태’ 우려에는 “그분의 역량대로 정치 일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경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른 당권 주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대권 주자의 전당 대회 불출마 요구에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며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 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홍 전 대표에 대해 “누구라도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분이 제 임기를 다하지 않고 지난 6·13 지방선거 대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이후 치러지는 첫 전당대회인만큼 당사자가 참여하게 되면 당원과 유권자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투표에 임하지 않을까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밤 지어놓으니 술기만 들고 담비는 사람들을 보니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무당적 상태이긴 했지만 찬조연설을 요청한 지역의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다 지역 유세를 다녔다”라며 “아마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경우 역시 “지금 현재 당헌·당규를 마련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비대위원장”이라며 “본인이 거기 직접 출마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당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 ‘특검까지’ 손혜원 공세 강도 높이는 野...침묵 택한 민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21일 목포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손 의원을 겨냥해 “도덕적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라며 “박지원 의원을 배신의 아이콘이라 했든 손 의원이야말로 오만방자의 아이콘”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정권 실세라는 배경을 얻고 사익을 추구한 손 의원은 헌법 46조가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고 심각한 위반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의원이 당당하다면 여당에 촉구한다. 특검을 받고 국정조사를 받으라”라며 “당당하다면 센 권력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 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당당하게 받을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손희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대통령

이나 부인이 직접 하지 않았어도 가까운 친구가 호가호위해서 잘못이 일어났음을 정의대 일로 치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민정수석실 업무”라며 정의대에 책임을 물었다.

민주평화당은 국정조사를 열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3일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목포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도 나서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의에서 손 의원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손 의원의 탈당 발표 기자회견에 동석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함구하기도 했다.

홍의표 수석대변인도 “(두 의원 관련해) 따로 말이 없었다”며 “손 의원은 이미 당적을 정리했으니 따로 말이 없고 서영교 의원 얘기도 아무 발언도 없었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